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한국판뉴스1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1 06. 25.(금) 총 3매(본문 2, 사진 1)	
담당 부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담당자	• 과장 김형덕, 지도계장 정운혁, 주무관 이상수 • ☎ (051) 410-1005, 1030, 1033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부산 앞바다, 어업 분쟁 갈등 해소

- “병어철” 제주 근해유자망과 부산 다대포 연안고정자망 간 상생조업 마련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제주 근해유자망과 다대포 연안고정자망 간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6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나무섬에서 남형제도 사이를 기준으로 정동쪽 약 12km 이내해역에서 매년 5~6월 한시적 병어 어장형성으로 조업구역 중첩, 어구 엉킴·유실 등 조업손실로 인한 양 지역·업종 간 어업분쟁이 심화되어 부산 다대포 연안고정자망협회에서 지난해 6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인 간담회, 분과위원회 등 총 12회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양 업계 간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회복 등 경제적으로 낭비되던 인력과 시간, 어구손실 등이 감소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9가지 합의사항이 담겨 있으며 △ 조업 시 준수사항 및 협약 이행사항(협약해역에서의 조업시간 및 기간, 조업어선 간 상호 연락 가능한 무선 공동주파수 설정, 어구 사용량 및 실명제 준수 등) △ 자율협의회 운영과 심의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등이 포함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어업조정 자율협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동해어업조정위원회(위원장 황수철)에서도 추후 어업인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와 홍보 등 어업에 관한 갈등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어업인 상생협력 해역 및 상생협력 협약식



어업인 상생협력 해역



상생협력 협약식